



다이스(William Dyce, 1806-1864), <슬픔의 사람>, 1860년, 유채, 34.9×48cm,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에든버러, 영국

### 성화 해설

화가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을 황량한 풍경과 함께 표현하였다. 예수님께서 잡초와 돌로 뒤덮인 산 중턱에 홀로 앉아 양손을 맞잡고 깊은 생각에 젖어 있다. 왼편에 치우쳐 앉은 그분의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경은 광야가 아니라 화가가 살았던 곳의 메마른 산이며 늦가을의 분위기를 전하는 갈색의 배경은 황량함을 더해준다.

**입당송** 시편 91(90), 15, 16 참조

**제1독서** 창세 9, 8-15

**화답송** 시편 25(24), 4-5ㄴ, 6과 7ㄴ, 8-9(◎10 참조)

◎ **주님, 주님의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은 모두 진실이옵니다.**

-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주님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
-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주님의 자비와 자애를. 주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
- 주님께서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도다.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시도다. ◎

**제2독서** 1베드 3, 18-22

**복음환호송** 마태 4, 4ㄷ ㄹ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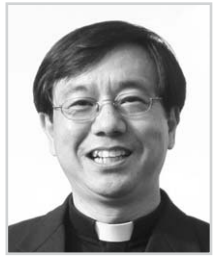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

**복음** 마르 1, 12-15

**영성체송** 마태 4, 4ㄷ ㄹ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허영엽 마티아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나 이 지긋한 한 자매가 사순절 피정중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청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한집에 살고 있는 큰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그는 며느리와 대놓고 불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예의를 깎듯하게 지켰고 서로에게 책잡힐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고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기도 중에 문득 자신이 며느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화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출근하는 며느리의 구두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며 황급히 시어머니를 말했습니다. 손을 잡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높게 가로막았던 마음의 장벽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던 상대의 평소 행동이 더 이상 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작은 기적 아닐까요?

하기, 작은 희생 같은 것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이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주님과 만나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가슴 쿵쿵 뛰는 기다림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기도와 묵상, 희생과 보속을 통한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주님 부활을 맞는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아. 이를테면 내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네 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될 거야.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진실과 정의, 기쁨과 평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곳이면 바로 거기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변화, 정신의 변화를 말합니다. 곧 자기 중심인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인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천이 함께해야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됩니다. 거창한 실천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살기도 바치기, 다른 사람 도와주기, 미소 짓기, 손잡아주기, 부드러운 말



# 마음의 분갈이



안미경 데레사 |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연구원

**작**년에 양란 옆에 동그란 잎사귀들이 총총 달린 잡초(?)를 심어놓은 화분을 하나 선물 받았다. 양란은 꽃이 없으면 잎사귀만 덜렁 두세 개밖에 없어 아주 심심하다. 그런데 옆에 작은 잎들이 늘어져 자라니 심심치 않고 푸른 색도 더 많이 즐길 수 있어 좋아 보였다. 당장 화원으로 달려가 몇 가지의 넝쿨들을 사서 집에 있던 양란들 마다 한쪽 옆에 다 심어 두었다. 덕분에 겨우내 우리 집 베란다에는 푸른 넝쿨들이 늘어져 꽃이 없어도 적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 며칠 분갈이를 하며 보니 이 넝쿨들은 훨씬 빨리 자라 뿌리가 밑으로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양란의 뿌리까지 감싸며 자라고 있었다. 양란의 뿌리들은 자리 잡지도 못하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양란의 뿌리를 다치지 않게 하며 넝쿨들을 뽑아내느라 애를 먹었다. 더구나 넝쿨들의 뿌리는 그물처럼 얽혀 얼마나 미세하고 많은지 흙도 다 갈아야 할 판이었다. 그 잔뿌리들을 걷어내며 내 마음속에서도 수없이 얽혀 자라고 있을 잡초의 뿌리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직 미개척분야이긴 하지만 에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성찰해가며 주님께 나아가자고 수녀님과 함께 연구소를 시작

한 지 벌써 11년을 넘어서고 있다. 돈을 벌자는 것도, 명예를 얻자는 것도 아닌 순수 봉사단체로서 단지 주님께 함께 나아가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과연 아직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인자...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성찰을 잘하는, 그래서 아주 성숙한 사람인 양 우월감을 느낀 적도 많았다. 책이 출판되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때 어색한 웃음 뒤에 으쓱함을 함께 느꼈음도 분명하다. 인세가 쓸쓸하게 들어오면 연구소에 모두 쏟아부으며 느끼는 또 다른 뿌듯함은 과연 주님만을 위해서였을까? 적어도 연구소에서의 모든 언행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라고 부르짖으며 해나가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라는 그것 때문에 교만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음을 늘 살펴야 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라는 미명하에 내 욕심의 뿌리, 내 이기심의 뿌리가 얼마나 그물처럼 얽혀 순수했던 초심(初心)을 갉아 먹고 있는지 새삼 돌아볼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내 마음에도 이 잡초의 뿌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올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 깊은 마음의 분갈이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9

###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고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책임은 그들에게 돌아간다” <가톨릭 교리서 2269항>.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제5계명은 직접적인 살인과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까지 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웃의 생명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는 11억 5천만 명이며, 굶어 죽는 아이는 하루에 약 4만 명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5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마태 4,2).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깊은 영적 수련의 여정을 이루는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 전례는 성경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매우 소중한 세 가지 참회 행위, 곧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우리 앞에 다시금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활절을 더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사순 시기 담화에서 특별히 단식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 시기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단식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마태 4,1-2). 증언판을 받기 전에 단식한 모세(탈출 34,28 참조)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단식한 엘리야(1열왕 19,8 참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와 단식을 통해 당신 앞에 놓인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유혹자에 맞서는 어려운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과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은 단식이 죄로 이끄는 모든 것과 죄를 멀리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의 역사는 단식에 대한 권유로 넘쳐납니다. 바로 성경의 첫머리에서 주님께서서는 사람에게 금지된 과일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6-17).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설하면서 바실리오 성인은 “낙

원에서 단식이 제정”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첫 계명이 아담에게 전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오 성인은 “‘먹지 마라’는 말씀은 단식과 금육의 법이다”(‘단식에 관한 설교’, 『그리스 교부 총서』[PG], 31, 163, 98)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그 결과에 짓눌려 있기에 하나님과 친교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단식이 권유된 것입니다. 에즈라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에즈라는 유배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고행하며”(에즈 8,21) 단식하자고 회중에게 권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 촉구에 따라 자기네 진심의 표지로 단식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요나 3,9).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사이들의 태도를 나무라시면서 단식의 깊은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스승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다운 단식은 “숨은 일도 보시고... 갚아 주시는”(마태 6,18)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마태 4,4). 그래서 참다운 단식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참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요한 4,34 참조).

단식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자주 이루어졌습니다(사도 13,3;14,22;27,21; 2코린 6,5 참조). 교부들 역시 특히 ‘옛 아담’의 욕망과 같은 죄를 억제하고 신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단식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단식은 모든 시대의 성인들이 흔히 실천하

고 권유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베드로 크리솔로고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식은 기도의 영혼이며 자선은 단식의 생혈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단식을 하십시오. 단식을 한다면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청에 귀를 막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청에 귀를 여실 것입니다”(『강론집』 43, 『라틴 교부 총서』[PLI, 52, 320.322].

오늘날 단식은 그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에서 육체를 돌보는 치료 가치만 지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식은 분명히 육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단식은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고치는 ‘치유법’입니다. 하느님의 종 교황 바오로 6세는 교황령(『회개하라!』[Paenitemini], 1966)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에는 단식이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수는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 그리스도인은 또한 자기 형제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회개하라!』, 1장 참조). 사순 시기는 이 교황령에 담긴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비로운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랜 관행의 참되고 영원한 의미를 재발견하여 우리의 이기주의를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향해 열어젖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신약의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며, 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마태 22,34-40 참조).

나아가 단식을 충실하게 실천하면 한 인간 전체, 곧 영혼과 육신의 일치에도 도움이 되어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게 됩니다. 육체에 영양을 주는 물질적 음식을 거절하면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는 내적 성향을 키워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단식과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존재의 내면에서 체험하는 가장 커다란 굶주림, 곧 하느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 주십니다.

단식은 또한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유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 버

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1요한 3,17) 스스로 단식을 하면 자신을 낮추고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돕기 위해 나아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5항 참조).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극기를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형제자매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형제자매에 대한 바로 이러한 환대와 관심을 계속 살리기 위해 사순 시기에 모든 본당과 공동체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와 자선과 더불어 개인적 공동체적 단식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단식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왔습니다. 단식을 통해 특별 헌금도 모았습니다(2코린 8-9; 로마 15, 25-27 참조). 신자들은 단식하는 동안 모아 놓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유받았습니다(『사도들의 가르침』, V, 20,18).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식이 중요한 수덕 실천, 곧 우리 자신의 무질서한 온갖 집착에 맞서 싸우는 영적 무기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봅니다. 음식이나 다른 물질이 주는 즐거움을 스스로 멀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원죄로 나약해진 한 인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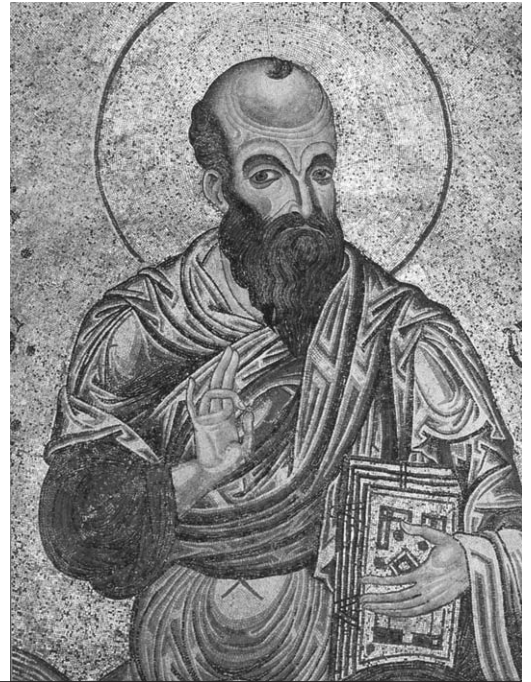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씀하신 대로, 단식의 궁극 목표가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서로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진리의 광채』, 21항 참조) 제대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 사순 시기를 잘 지내어 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 안에서 자라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와 거룩한 독서, 고해성사에 힘쓰고 성찬례 특히 주일 미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합니다. 이러한 내적 자세로 사순 시기의 참회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즐거움의 샘이신(Causa nostrae laetitiae)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 마음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언제나 ‘하느님의 살아 있는 감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바람을 안고 모든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충만한 사순 시기의 여정을 견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로서 진심으로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 '바오로 해'

(2008년 6월28일~2009년 6월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신자들이 성 바오로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고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바오로 해' 기간 동안 매월 첫째 주 서울주보에 바오로 사도의 생애, 서간, 사상, 영성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 '사랑'에 대하여

1코린 13장에서 바오로는 매우 아름다운 필체로 사랑에 대해 노래한다. 1코린 13장은 바오로가 코린토 공동체의 구체적 질문에 대해 자상하게 대답하는 1코린 7,1-14,40의 문맥에 포함되는데, 이 문맥에서 특히 12,1-14,40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코린토 공동체의 질문에 바오로가 대답하는 부분이다. 서두에 있는 12장에서 바오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괄적 가르침을 주고 있고, 14장은 그 은사에 대한 실제적 지침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12장과 14장 사이에서 위치한 13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사랑"이다.

그렇다면 바오로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일까? 아쉽게도 바오로는 자신의 서간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반면에 그는 "사랑"에 대해 서술한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13장 중에서도 4-7절이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직역될 수 있다.

사랑은 참입니다

자비롭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뽀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희망합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먼저 4-7에서 바오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가장 큰 속성 두 가지를 언급한다. "참입니다"라고 번역된 첫째 속성은 그냥 일상적이고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를 의미한다. 바오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낭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역동적 속성이다. "자비롭다"라는 둘째 속성은 "참입니다"라는 역동성에 색을 입히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참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랑의 본질은 "자비로운 참음"이라는 것이다.

4-7에서도 역시 사랑에 대한 서술이 계속된다. 하지만 전반부와는 다른 "~하지 않습니다"라는 부정문이 8번 연속으로 등장한다. 이 8번의 부정문은 각각 한 쌍씩 모두 4



쌍으로 엮을 수 있다. 그 첫째 쌍은 “시기”와 “뿔냄”이다. 1코린 12-14장의 문맥으로 미루어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뿔냄”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공동체의 누군가가 타인의 은사에 대해 시기하거나, 자신의 은사에 대해 뿔내는 것은 결코 사랑에 근거한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둘째 쌍은 “교만”과 “무례”이다. 먼저 “교만”은 앞선 “뿔냄”을 이어받으면서 상승시킨다. “뿔냄”이란 무엇인가를 과장하고 허풍을 떠는 것이라면 “교만”이란 무엇인가에 한정되지 않는 존재적 문제이다. 그리고 “교만”이 내적 태도의 문제라면 “무례”는 외적 양상이다.

그 뒤를 이어 셋째 쌍이 등장한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이는 둘째 쌍의 후반부, 즉 “무례”를 이어받고 있다. 무례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방향을 바꾸어 자신을 향할 때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한 쉽게 다른 이에 게 성을 낸다.

마지막 쌍은 “악한 것을 계획함”과 “불의에 대해 기뻐함”이다. 이 마지막 쌍을 통해 사랑의 대척점이 갖는, 즉 사랑이 없는 인간행위의 신학적 문제점이 최고조로 드러난다. 악한 것을 계획하고 불의에 대해 기뻐함은 결국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6ㄴ은 사랑이 진리(진실) 안에서 기뻐함을 언급한다. 이는 불의에 대해 기뻐하지 않음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4ㄴ부터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네 쌍의 부정적 서술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4ㄴ부터 등장하는 네 쌍의 부정문들은 각각의 시작이 앞부분과 연결되는 고리식의 연결구조 안에서 점점 상승하여 마침내 사랑을 신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밝히고 있다. 인간 감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랑”과 인간 지성의 최종적 가치인 “진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해 바로로는 자신만의 시적 언어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7절부터 다시 긍정문으로 돌아오면서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 마무리 부분에서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네 번에 걸쳐 반복된다. 그 첫째와 마지막, 즉 “덮는다”는 표현과 “견디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참고 인내하다”라는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4ㄱ에 등장

하는 사랑에 대한 최초의 서술을 반복하고 있다. 둘째 표현은 “믿음”을, 셋째 표현은 “희망”을 각각 사랑과 연결시키며, 사랑을 그 주체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13장의 끝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 믿음과 희망이 가능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 본질은 참고 인내하는 것임이 47절의 결론이다.

바로로가 노래하는, 진리를 기뻐하는, 그리고 믿음과 희망의 근본적 동력인 그 “사랑”의 본질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과연 바로로는 무엇에 대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바로로는 자신의 서간에서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독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제시한 큰 원칙을 통해)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코린토 공동체는 (1코린 1,10이하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바로로파, 아폴로파, 케파파 등으로 나뉘어졌으며, 성령의 은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된 견해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바로로는 그 분열된 공동체의 상황 앞에서 “사랑”에 관해 노래하며, 그 본질인 (서로를) 참고 인내하는 태도를 요청한다.

1코린 15장부터 바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종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만약 1코린 13장의 사랑에 대한 노래를 1코린 15장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면, 13장의 “참고 기다림”의 신학적 지평이 더 넓어진다. 즉 “참고 기다림”은 또한 종말론적 사랑의 본질, 즉 종말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이라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역동성은 단지 바로로의 시대와 코린토라는 장소에 한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공동체의 상황에 분별의 기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종말론적 지평으로 확장되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코린토 공동체를 넘어 오늘의 공동체 역시 바로로의 이 노래를 우리들의 “사랑” 노래로 읽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가회동성당 주임

소식

**주교회의 해외이주사목위원회, '해외 한인 천주교회 통계(2008)' 발간**

주교회의 해외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이병호 주교)는 '해외 한인 천주교회 통계(2008)'를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외 한인 교회는 6개 대륙 63개국에 173개 본당, 165개 공소가 있으며 해외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천주교회 신자수는 15만 6,6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3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3월15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3월22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9954-2123
중3	3월8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577-2123
고1	3월8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61-2123
고2	3월22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72-2123
고3	3월15일(일) 9시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8803-5695
일반	3월14일(토) 14시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010-8803-56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3월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1954년, 용산
- 3월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1975년, 용산
- 3월6일 홍병철 루가 신부(39세) 1913년, 용산

**서울대교구 사무실 이전 안내**

서울대교구는 가톨릭회관에 있던 교구 내 부서를 교구 사목센터(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5층 좌측으로 이전합니다(전화번호는 동일).

부서	이전일	부서	이전일
직장사목부	3월2일(월)	일반병원사목부	3월3일(화)
임상교육센터	3월4일(수)	민족화해위원회	3월5일(목)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금호동성당 주간·야간 관리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40~60세 남교우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주간 관리원: 각종 자격증 소지자 우대 / 3월10일(화) 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면접은 개별 통보)
- 문의: 2237-9671 금호동성당(제출서류 반환 안 됨)

**교구청 알림**

**전·의경 대원 교리교육 봉사자 모집**

- 교리교육봉사자: 전·의경들에 대한 교리와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결혼 받은 55세 이하 교우) /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 청년자원봉사자: 전·의경 미사전례를 위한 청년자원봉사자(음악봉사 포함) / www.catholicpolice.or.kr

**제12기 가톨릭 사회복지학교 기초과정**

- 대상: 본당사목위원, 사회사목분과위원 등 제단체 회원 및 일반 교우(3월9일까지 접수)
- 때: 3월12일-5월14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 727-225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5만원(교재 포함)

**2009학년도 개발활동 KYCS반 신청**

- 대상: 중·고등학교 개발활동반 운영을 원하는 선생님 / 553-7320-2(www.kycs.or.kr) 청소년국 중·고등학교 사목부(KYCS)
- 프로그램: 가톨릭반(예비신자반), 공예반, 문화반, 심성개발반, Teen STAR반(성교육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대상: 후원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921-5094
- 때, 곳: 3월2일(월) 10시2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전대사를 받기 위한 1일 지방 성지순례**

- 때, 곳: 3월15일(일), 황새바위·수리치골(8시 사당역 출발) / 회비: 2만5천 원(성가책 준비)
- 문의: 2269-0413 순교자 현양회(선착순 전화접수)

**사목국 가정사목부(문의: 727-2071, 2)**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월례특강 및 미사**

- 때, 곳: 3월3일(화) 13시30분-16시30분,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 주제: 기본장애-우울증
- 강사: 이기령 교수(극동대 간호과) / 회비 없음
- 7기 부부태교교실**

- 대상: 임신 4개월 이상 부부 10쌍(선착순)
- 때: 3월14일-28일 매주(토) 14시-17시(3주간)
- 곳: 교구 사목센터 6층 소성당(3월11일까지 접수)
- 회비: 10만원 / 홈페이지: www.ihome.or.kr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문의: 727-2065)**

**함께하는 여정 1단계**

- 대상: 예비신자 교리 봉사자(회비: 2만5천 원)
- 때: 3월12일-4월2일 매주(목) 오후 2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3월5일까지 접수
- 성주간 전례교육: 3월10일까지 접수(회비: 1만 원)**
- 대상: 각 본당 전례봉사자, 관심있는 교우
- 때, 곳: 3월18일(수) 오후 1시30분, 명동성당

**사목국 성서사목부 '성서못자리' 강좌**

- 때, 곳: 3월2일부터 매주(월), 명동성당 내 교육관 / 문의: 775-5789(당일 접수)
- 오전반: 10시30분-12시30분, 오후반: 19시-21시
- 회비: 정기·나눔터 5만원, 청년못자리 4만원

정기강좌	입문 (1-5권)	오전반	허영엽 신부(문화홍보국장)
나눔터강좌	코린토전서	오전반	정수용 신부
청년못자리	사도 바오로와 바오로서간	오후반	신희준 신부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3. 8. 14시	성북동 수녀원	011-9799-8790
살레시오 수녀회	3. 8. 14시	서울본원(7호선신풍역)	011-560-4658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서울관구)	3. 8.	명동성당 뒤 본원	3706-3233
성 마리아 재속회	3. 8. 14시-17시	미아리 양성소	019-316-6293
성 바오로딸 수도회	3. 7. 15시	미아리 본원	011-232-1611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3. 7. 14시	뚝섬 수도회	010-9204-1262
예수의 소화 수녀회	3. 8. 14시-17시30분	수녀회 본원(광주)	010-9250-5754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예수마리아성심전교수녀회	3. 8. 14시	수녀회 본원	010-3227-9446
인보성체 수녀회	3. 8. 13시30분	수유리 수녀원	011-380-5159
작은 예수 수도회	3. 8. 14시	수도원 본원(군자동)	011-9920-2111
천주 섭리 수녀회	3. 8. 14시	수원가톨릭대 옆본원	010-3940-3635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3. 8. 13시30분	성산동 수녀원	016-835-4858
하비에르 사도회	3. 8. 14시	하비에르 국제학교내	019-360-5649
한국 순교 복자 빨마수녀회	3. 8. 14시	부산 본원	582-4997





알림

9지구 오르간 교육 연구소(미사 반주자 교육)

- 미사 반주자 및 예배 반주자의 오르간 교육(강사: 명동성당 오르가니스트) / 475-4765, 010-2203-8183
- 곳: 천호동성당 내 / 회비: 월 12만원(주 1회)

한국 수화 기초반 개강

- 때, 곳: 매주(일) 9시-10시40분, 낙성대성당 손팔사랑(주최) / 강사: 정봉현(7월 첫째주 수료식)
- 개강: 3월15일(일) / 회비: 5만원(교재비 포함)
- 문의: 017-287-1570(sonlove1004@cyworld.com)
- 교중미사 수화통역(지화병행): 매주(일) 11시

103위 성인서성 25주년 기념

한국교회사연구소 상반기 공개대학

- 주제: 103위 성인의 생애와 활동(회비: 5만원-교재비 포함) / 756-1691(내선 1번) 한국교회사연구소
- 접수: 3월9일까지 선착순 마감(www.history.re.kr)
- 때: 3월12일-6월4일 매주(목) 19시-20시30분
- 곳: 한국교회사연구소 회의실(평화방송 빌딩 4층)

가톨릭 수지침 봉사자 학교 제8기 개강

- 대상: 신심 건강한 60세 미만의 남녀, 수료 후 수지침 봉사 희망자(선착순 40명) / 계좌: 국민은행 375301-0400399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수지침)
-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고려원 교재학회 우수강사 책임지도 20주(회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맥 위주의 임상실기과정 책임지도 28주(회비: 10만원, 교재: 4만5천원) / http://cafe.daum.net/shkseoul
- 때, 곳: 3월17일부터 매주(화) 14시-17시(1년), 가톨릭회관 4층 426호 / 727-2245, 010-5216-2096

4월 ME 서울협의회 주말

- 주제: 성숙한 혼인 생활을 위해(결혼 5년 이상 부부)
- 홈페이지(www.me.or.kr) 참조 / 511-9901, 2
- 4월17일-19일 서울1101차(서서흥82) 성베네딕도 가정의집(장충동)
- 4월24일-26일 서울1102차(동서울90) 예수교간회 평화의집(우이동)

에니어그램

- 강사: 윌 엘리사벳 / 문의: 016-305-9256
- 곳: 전교가르멜 수녀원(주최) / 전철 3호선 경복궁역
- 홈페이지: http://cafe.daum.net/Enneagram

1단계	3월14일(토)-15일(일)	토요일 14시-18시
2단계	3월21일(토)-22일(일)	일요일 10시-17시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역정 에니어그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 내적역정1부1단계 3월14일(토)15일(일) 14시-19시 연구소교육관
- 3월20일(목)27일(일) 10시-16시 명동성당 교육관 303호
- 내적역정2부2단계 3월28일(토)29일(일) 14시-19시 연구소교육관

가톨릭 가족 상담센터

- 문의: 032)683-8241~3(부천시서월동)
- |        |                    |
|--------|--------------------|
| 성인     | 심리상담(개별, 부부, 가족상담) |
|        | 심리검사, 성격유형검사(MBTI) |
| 아동·청소년 |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
|        | 성격유형검사(MMTC), 적성검사 |

작은예수사랑음악원 기악 강습

- 곳: 작은예수회관(능동, 전철 5·7호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 지하) / 문의: 018-330-3283
- |                         |             |              |
|-------------------------|-------------|--------------|
| 기타: 3개월 18만원            | 드럼          | 키보드(화성학)     |
| 일렉 베이스: 24만원            | 3개월 18만원    | 초급(3개월) 18만원 |
| 월·수·목(주 1회) 월·수·목(주 1회) | 월·수·목(주 1회) | 중급(3개월) 24만원 |
| 수요찬양: 매주(수) 오후 2시-5시    | 월·수·목(주 1회) |              |

성직자, 수도자, 일반인 상담자 교육(월요일반)

- 때: 3월-12월 10시-16시(1-3주) / 323-3222, 011-703-5904
-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전인상담 교육 연구소(주최)
- 회비: 성직자·평신도 50만원, 남여 수도자 25만원

심리치료 정영연 교수(의대) 노인상담	이정호 교수(서울대)
성애발달 연분희 교수(연세대) 권익업 전담심	오성식 수사(수도회)
정신병리 원희택 교수(서울대) 가족관계이론	이남우 교수(독일대)
심리평가 박기환 교수(가톨릭대) 해중심기중심	김계현 교수(서울대)
행동수정 남중호 교수(가톨릭대) 대성관계중심	경혜자 수녀(연구소)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마음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월례강좌	3월20일(금) 10시-16시	심리발달과정 이해와 상지의 치유, 마음훈련(1만원)
김수성 훈련	3월5일-4월2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 여기에서의 정서적 민감성 훈련
T·A를 통한 자기발견과 관계개선(T·A01론)	3월3일-5월12일 매주(화) 10시-13시(10주)	
참치기 찾기 훈련	3월28일(토) 10시-21시 / 29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제성 찾기, 친밀한 관계
자아성장집단	3월12일-4월30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8회)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 주제: '빛내음' 기도모임 / 010-5730-6322(sspskorea.org)
-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명륜동 수녀원 본원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 교육

- 때, 곳: 3월9일(월) 13시-17시, 방배 서서교육관 (전철 사당역 1번 출구) / 945-5982, 010-9803-3037
- 회비: 1만2천원 / 가리따스 수녀회 생활성서사(주최)

2009년 씨든 연구원 종교대학 강좌

- 주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애영성 / 강사: 서중범, 전혜주, 김중옥, 이정배, 조현철, 구미정, 최현민
- 때: 3월-12월 둘째(월) 16시-18시(회비: 9만원)

가톨릭 목조각 '기초에서 작품까지'

- 내용: 성화, 성구, 성모 마리아, 십자고상 등
- 때, 곳: 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오후반) · 19시-21시30분(야간반), 청담동성당(주최) 지하 목공예교실
- 문의: 3446-1544(http://cafe.naver.com/ecodiy)

나자렛 성가회 기공력 전문상담원 교육(여성부 자격인정)

- 대상: 전문대졸 이상 / 회비: 30만원(교재비 포함)
- 때: 3월7일-5월16일 매주(토) 오전 9시-오후 6시
- 곳: 나자렛 성가회 교육원(중로구 평창동)
- 문의: 379-4803(계좌: 신한은행 100-022-727249)

영어성서나눔(ENTS) 봄 22기 강좌 '코린토 II'

- 대상: 교우(영어 강의와 나눔) / 회비: 4만원
- 강사: Anne 수녀(마리아의 전교사 프란치스코 수녀회)
- 때, 곳: 3월5일-6월18일 매주(목) 19시20분, 명동성당 별관 / 011-828-4750, 016-201-4718(교재 제공)
- 개강 당일 접수(http://cafe.naver.com/iloveents)

2009 노틀담 첫 영성체 지도자연수 9기

- 대상: 가톨릭 교육기관의 교사, 수도자, 본당교리교사, 첫영성체, 건진, 예비자, 신자재교육담당자
- 때: 4월20일, 27일, 5월11일, 25일, 6월15일, 29일 14시-18시, 노틀담 교육관(안국동)
- 문의: 763-2274, 017-714-2274 노틀담 실천교리교육 연구소(홈페이지: www.ndrpp.or.kr)

모집

상계요양보호사 교육원 수강생 모집

- 때: 오전 9시-오후 6시(이론, 실기) / 6401-9950
- 회비: 40만원(교재비 별도) / 기간: 4주+10일실습
- 가평꽃동네 노제리안드리아재병원 간호사님·여모집
- 분야: 정신과, 병동(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문의: 031)589-0301, 011-9279-5890

가톨릭출판사 편집 경력사원 모집

- 내용: 도서편집, 4년제출 / 근무지역: 파주 조리읍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3월6일까지 접수
- 문의: 360-9117(cph114@catholic.or.kr)

미국 성가정 작은 자매회 수녀원 성소자 모집

- 대상: 고졸이상, 18세-40세 미만의 미혼여성
- 이민사회에서 함께 봉사할 수도 성소자를 찾음
- 문의: 1-301-947-1955 수련소, 1-301-236-4009 본원

2009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비우 단원모집

- 대상: 성가대 단원 또는 음악에 관심있으신 2050대 남성교우 / 곳: 가톨릭대학교 교회사학과대학원 1강의실
- 연습: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 011-724-0242

아마리 성향단 단원모집

- 대상: 성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지휘: 박재광 교수) / 문의: 016-320-9318, 010-3111-2559
- 오디션: 3월7일(토) 15시, 성모병원(여의도) 4층 강당
- 자유곡 1곡(가톨릭 성가) / 연습: 매주(월) 19시

서울대교구(사서율시노아카데미) 사회복지사 모집

- 대상: 대졸 이상의 40세 미만 교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유자(노인사회복지 경력자 우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 3월16일(월)까지 접수(종로구 인의동 167 서울대교구 시니어센터 종로성당 내 4층)
- 문의: 765-8458, 765-8459(www.isenor.or.kr)

분도출판사 편집부 남자직원 모집

- 대상: 4년제 대졸, 35세 이하(경력자, 영어·독어 독해 가능자 우대) / 3월31일(화)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서류 심사 후 4월10일까지 개별 통보 후 면담)
- 이메일: editor@bundobook.co.kr(제목: '이력서', 전 화문의 사절) / 주소: 중구 장충동 1가 54-1 분도빌딩 205호 분도출판사 편집부(접수된 서류는 반환 안됨)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 자원봉사자 및 차량 봉사자 모집 / 987-6009
- 대상: 0-6세, 장애복지카드 소지자, 기초수급 대상자(운영: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디딤자리(주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가톨릭경영자과정 제12기 모집

- 가톨릭 교우를 위한 최고의 영성·경영교육
- 대상: 천주교 교우로서 기업체 대표·임원, 전문직 종사자(법조, 의료, 회계 등), 국공립 기관 및 공사의 대표·임원 고위 공무원(군장성), 이와 동등한 역할을 하시는 사회지도자, 성직자·수도자
- 수업: 3월 말-11월(7·8월 방학) 매주(목) 저녁
- 문의: 705-8030(http://gbiz.sogang.ac.kr)

미사

성모자애보육원 후원회 미사(문의: 937-6900)

- 때, 곳: 3월2일(월) 14시, 성모자애보육원 경당

한국 외방 선교회 월례미사(문의: 3673-2525)

- 때, 곳: 3월4일(수) 오후 2시, 명동성당 소성당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곳: 3월7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가톨릭 운전기사 사도회 3월 월례미사

- 때, 곳: 3월9일(월) 14시(다조) · 10일(월) 14시(가조) · 23일(월) 14시(나조), 명동성당 소성당 / 775-9052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때, 곳: 3월6일(금) 오후 2시30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센터 2층 / 문의: 929-2977

서소문 순교성지 전대사 미사

- 때: (일) 15시, (화-토) 10시 / 문의: 312-5220
- 곳: 중립동성당 내 서소문 순교자기념관 성당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위령미사

- 후원회 미사: 3월5일(목) 오전 11시
- 위령 미사: 3월26일(목) 오전 11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74-8025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과 함께 입대 자녀와 회의를 위한 미사 / 문의: 776-0457
- 때, 곳: 3월2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살레시오 관상 기도회 미사, 영성강좌, 연수

- 대상: 누구나(지도: 김보록 신부) / 889932, 010-711-9928
- 때, 곳: 매주(목) 10시30분-12시30분, 가리따스 수녀원(전철 2호선 사당역 1번 출구 직진 500m 우측)

예수 성심 기도 미사(절두산 후원 로사리오회)

- 순교성심 기도하고 싶은 분(천주교를 위한 미사)
- 때: 3월6일(금) 12시(기도) · 13시(미사)
- 곳: 절두산 순교성지성당(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11-205-8003(중식제공)

안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미용·목욕·주방 봉사자들 자원봉사자 모집

치유예술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07-5544)

- 담당: 김 A. 클라라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개인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심상치료 / 010-9171-2583
- 곳: 수녀원(전철 4호선 숙대입구역, 1호선 남영역)

쌤 나우리 상담센터(문의: 2248-4583, 4)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서울 관구에서 운영
-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및 사회 적응 집단치료 등 / 대상: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2009년 제 1기 82기 명동성당 문화강좌 안내(3-5월)

오르간	매주(화·수) 9시-18시(매월 초개강), 범우관 408-409(회비: 12만원)
초급반(금)	10시-11시 / 회비: 2만원
꽃꽂이	중급반(금) 11시-12시 / 회비: 2만5천원
전례반(금)	11시-12시 / 회비: 3만원
서예	3월4일부터 매주(수) 10시-12시, 범우관 410(회비: 7만원)
요셉발	3월5일부터 매주(목) 11시-12시30분, 교육관 205
반야연	(회비: 7만원) / 문의: 774-1784(교관 215)

※교회단체 알람 게재 신청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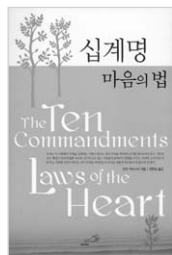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스즈키 히데코 지음 | 이소라 옮김 | 생활성서 | 157쪽 | 8천 원  
 행복을 주제로 한 평범한 일상의 삶 안에서 '하루를 미소 짓게 하는' 35가지 이야기이다. 저자인 스즈키 히데코 수녀가 경험했거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커가는 사랑', '따스한 공감', '깊어가는 유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주교 주요 교리

박도식 지음 | 바오로딸 | 72쪽 | 2천5백 원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70가지 천주교 주요 교리 문답집으로, 가톨릭 주요 기도문도 함께 실려 있다. 예비신자들이 천주교 주요 교리를 공부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며, 신자도 핵심 교리를 익혀 여러 가지 물음에 답하도록 돕는다.



십계명 마음의 법

조안 키티스터 지음 | 성찬성 옮김 | 성바오로 | 206쪽 | 8천 원  
 십계명이 지닌 의미를 다룬 책으로, 십계명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계명이 오늘날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또한 지금 시대에 계명을 따르며 그 원칙에 입각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도록 성찰 문안을 제시한다.



영원한 도움성서연구소 편지

영원한도움성서연구소 편지 | 성서와함께 | 268쪽 | 1만6천 원  
 신약성경 27권 중 23권에 관한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응답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선포하는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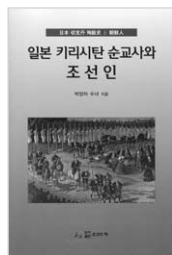
향심기도 수련

이세영 · 이창영 지음 | 분도출판사 | 136쪽 | 7천 원  
 향심기도는 영성에 목말라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가톨릭 전통의 관상기도를 대중화하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은 향심기도에 대한 정의, 렉시오 디비나, 향심기도의 신학적·심리학적 접근, 향심기도 수련법에 대한 내용이다. / 구입문의: 2266-3605



사랑의 발걸음

조셉 A. 테틀로 지음 | 성은숙 옮김 | 이훈 감수 |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192쪽 | 8천 원 | 구입문의: 717-3869  
 영신수련을 지도했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영신수련을 돕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주간별, 주제별로 정리한 안내서이며 해설서이다.



일본 키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

박양자 지음 | 순교의 맥 | 420쪽 | 2만 원 | 구입문의: 707-5500  
 포교와 저항 전성기, 박해와 순교시대 등을 거쳐 오늘날 일본 가톨릭교회의 발전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책이다. 또한 포교와 노예 신분으로 이국땅에서 한 많은 생애를 보냈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조선인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베아테 라코타 지음 | 발터 셀스 사진 | 장혜경 옮김 | 웅진 지식하우스 | 264쪽 | 1만1천 원 | 구입문의: 3670-1078  
 독일 사진작가와 저널리스트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23인의 환자들을 만난 기록이다. 살아있음의 의미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은빛 여정(구약성경 4 -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

김건태 성경해설 | 서현승 그림 | 생활성서 | 96쪽 | 1만1천 원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로 구약 4권, 신약 4권 모두 8권으로 이뤄져 있다. 한 학기에 1권씩 이수해 4년 동안 신구약 전체를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에 출간한 책은 '호세아서와 예제키엘서'이다.



태내 기억 - 버스 트라우마의 비밀

시치다 마코토 · 쓰나부치 요우지 지음 | 이현숙 · 심홍임 · 고도홍 옮김 | 한국문화사 | 176쪽 | 1만2천 원 | 구입문의: 464-7708  
 '버스 트라우마'는 출생 시 신생아가 받는 물리적인 신체손상을 말하는데 이 책은 태내의 기억과 정신적인 손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부들에게 도움 된다.

새로운 성경신학사전 2

P.로씨노 · G.라바시 · A. 지를란다 외 41명 지음 | 임승필 외 20명 옮김 | 바오로딸 | 832쪽 | 6만 원(3월까지 예약주문시 4만2천 원) | 구입문의: 944-0813



성경 73권의 메시지를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배경 안에서 조명한 성경신학사전이다. 성경을 신학적이고도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 방법론적으로 제시하면서 해석학적·유대교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와 이론적인 면에서 도움을 준다.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주는 안내서가 되며, 성경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며 묵상과 성경 통독의 길잡이가 된다.

서가 되며, 성경에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며 묵상과 성경 통독의 길잡이가 된다.

소프라노 박명랑 독창회

·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매 및 문의: 2265-9235 지음기획



소프라노 박명랑(아가타, 목동성당)의 '사랑의 노래' 콘서트가 한국반주 음악연구소와 이탈리아 문화원,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의 후원으로 3월4일(수)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에서는 봄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을 주제로 한 칼다라, 모짜르트, 브람스 등이 연주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5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